

[지방종합]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급하다

순천제일대 전준민교수 주장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악취관리 방안 대책 수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제일대 전준민 교수팀은 지난 25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남해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지역의 악취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장별 부지경계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농도지수가 나타나고 있어 여수산단지역도 타 산단지역과 같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업체들이 시

악취농도 기준치 초과...민원 지속 발생 오염물질배출 기준 강화 등 대책 필요

시설을 갖추는 등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생산 및 포장, 제품 출하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여수산단 사업장 내부나 주변지역에 악취를 유발시키는 주요 발생원으로 전 교수팀에 따르면 여수산단지역의 악취오염 민원은 2001년 총 8건, 2002년 6건, 2003년 2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여수산단 주변 마을의 이주가 진행중인데 있어 민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여수산단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

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팀은 지난 2003년 일부 사업장과 2004년 주요 사업장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악취물질의 악취농도지수와 공기희석배수를 산출한 결과 SOQ(악취농도지수)값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황 화합물, 카르보닐 화합물 및 아민 성분들이 악취농도지수가 높았으며, 사업장의 시설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였다.

또 SOQ값이 높을 때 공기희석배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몇몇 사

업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물질에 포함된 성분에서는 공기희석관능도가 낮으나, 조사대상 이외의 성분들에서 높은 공기희석관능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공기희석배수가 높게 관측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유발물질을 살펴보면, 황화합물, 방향족 화합물, 카르보닐류, 지방산 화합물, 아민류 성분들이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민 교수는 "타 지역 산단의 경우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수산단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환경관리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훈기자 kangsw@



고흥 갯장어 잡이 시작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고흥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갯장어 잡이가 시작됐다. 고흥과 장흥 등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잡히는 갯장어는 1천여개의 낚시가 달린 줄을 드리워 2시간여 뒤 걷는 연승(延繩)어업 방법으로 잡는다. 일명 '하모'로 불리고 있는 이 갯장어는 살짝 데쳐 먹거나 회로 먹으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육질의 맛이 일품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공용 파이프랙·로딩 암 완공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부두내에 공용 파이프랙 및 로딩 암(Loading Arm) 설치공사가 완공돼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6월 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신설 석유화학부두에서 '공용 파이프랙 및 로딩암 시설 설치공사' 준공식을 가진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사업비 103억여원을 투입, 신설 석유

화학부두로부터 기존 파이프랙 구간까지 총 연장 1천673m, 폭 5m의 공용 파이프랙 및 하역시설인 로딩암 10기의 설치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또 올해도 추가로 1천590m의 파이프랙과 10기의 로딩암을 설치하는 2차 공사를 추진중인데 있어 여수산단 물류난 해소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제품을 파이프랙을 통해 공급받

아 왔는데 그동안 기존 중흥부두의 체선, 체화현상 심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철두 이사장은 "공용파이프랙 및 로딩암 시설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맺은 결실로 모든 기업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파이프랙=액체 및 기체제품을 운송하는 관로를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선반형태의 구조물

◇로딩암=액체 및 기체제품을 운반선에 선적 또는 하역시 사용하는 굴절형 팔 형태의 흡입배출 기구

순천시 산하 위원회 14개 없앤다

순천시는 각 실·과·소가 운영하고 있는 75개 위원회 중 14개를 축소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예술운영자문위, 친환경농업추진위 등 5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가, 소비자정책심의회와 공공근로사업 심의의 등 5개는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대행토록 했다.

또 건축분쟁조정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등 4개는 건축위원회에 흡수된다. 시는 다음달 조례 등을 정비한 뒤 7월 의회의 결의를 거쳐 8월부터 이같은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선 14개를 줄이기로 했다"며 "위원회 정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137명 승진·전보

여수시는 30일 4급 이하 공무원 26명의 승진을 포함해 13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박광식 총무과장과 서흥호 엑스포지원단장이 각각 4급 서기관 자리인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과 세계박람회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전후해 발생하기 쉬운 조직내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선거 결과에 따른 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박광기기자 ykpark@

/지역 단신/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광양시는 30일 "장애인의 체력단련 및 재활치료 극대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을 증축,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본격 건립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광양시 장애인 선수들은 종합복지관 옥상을 임시 체육시설로 사용해 왔으나 옥상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부상 위험을 감수해 왔고 천장이 없어 우천시에는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근 시·군으로 원정 연습을 다녀오거나 연습을 하지 못해 출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함평경찰 어린이집 교통안전교육



함평경찰은 30일 함평읍 삼에 어린이집을 방문, 원생 55명을 상대로 통학버스의 안전 승하차 요령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을 주제로 현장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함평경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해 교통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적조방제용 황토적지 물량장 조성

적조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방제용 황토적지 물량장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30일 여수시는 유해성 적조 발생시 초동단계에 긴급 방제를 통한 적조확산 방지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적지 물량장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업비 3억여원을 들여 남면 화대리 공유수면에 800㎡ 규모의 물량장 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인가를 받았으며 적조발생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적조방제에 총력을 기울일으로써 어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무안 452-8535	나주 332-5544 나주남부 334-6969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영도 554-6677	화순 374-4423 장성 392-7000
보성 853-9700	영광 351-1004 영암 473-2340	담양 383-8111 영암 473-2340
순천 746-8111	진안 243-3758 신안 543-0100	장흥 863-8822 광산 944-0444
고흥 833-9900	강진 433-8355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
곡성 362-8111		

전국은 바다의 심에 폭~배웠다!

바다의 심에 폭~배웠다!

바다의 심에 폭~배웠다!

침이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례적 공법적 특장

우례적 공법적 특장

우례적 공법적 특장